

중 국

중국 법원, AI 스포츠 드라마 무단 녹화·판매에 따른 저작권 침해 형사책임 인정

2026. 05. 27.

국제협력팀

중국사무소

최근 중국 법원은 전국 최초의 AI 스포츠 드라마 침해 형사사건에 대해 1심 판결을 내림. 사용자의 창작적 설정과 표현이 반영된 AI 스포츠 드라마를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인정하고, 이를 무단 녹화·판매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책임을 인정함.

○ AI 스포츠 드라마 무단 유통에 따른 형사책임 인정

광저우시 황푸구 인민법원(广州市黄埔区人民法院)은 피고인 2명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AI 스포츠 드라마 1,700여 편을 무단 녹화한 뒤 인터넷을 통해 유통·판매하여 영리를 취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게 유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 2개월 및 각각 6,000위안과 3,000위안 벌금형을 선고함.

사건의 AI 스포츠 드라마는 단순히 생성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작 각본에 주제, 인물, 줄거리, 스타일 설정을 통해 개성 있는 아이디어와 독창적인 표현을 구현한 것으로, 법원은 이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인정함.

○ AI 스포츠 드라마의 저작물성 인정 기준

광저우시 황푸구 인민법원 부원장(副院长) 류징(刘静)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보호하면서 기술혁신도 합리적으로 보호해야한다고 설명함. 기업의 입장에서는 훈련 데이터의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엄격한 사전심사와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창작자는 AI를 창작 보조도구로만 활용하며 저작물에 독창적 지적 투입이 반영되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힘. 또한 일반 사용자에게는 AI 생성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여겨서는 안되며, 대량으로 유통할 경우 수익이 없더라도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함.

■ 참고자료

광둥성고급인민법원(广东省高级人民法院)

- <https://mp.weixin.qq.com/s/xENipfqCpOiAqaYG2qNhzw>